

지휘서신

“위례지역 예비역 업무시설 건립사업” 조기추진 여건 마련

친애하는 각급회 회장, 해외지회장 여러분! 66개 참전 및 친목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1,300여만 향군회원 여러분!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다양한 안보활동을 통한 대국민 계도활동은 물론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군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향군이 안보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향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향군으로 거듭 나기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향군은 지금까지 북한의 6차 핵실험 범국민규탄대회,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대규모 환송행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9.19 군사합의 지지 성명,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 및 ‘미 참전용사 보은의 밤’ 개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전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및 성금 전달 등 손으로 꼽기 어려울 만큼 안보단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각급회 회장님들과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기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향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향군은 향군법 제4조에 의거 자체수익사업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향군의 방대한 조직 관리 및 안보활동을 해온 국내 최대

의 안보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환경과 경영 여건의 미흡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의 각별한 배려로 우리 향군의 숙원사업인 “위례지역 예비역 업무시설 건립사업”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위례신도시 사업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송파·거여 지구 개발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송파지역 주둔 특수작전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 등 군부대가 이전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예비역장병들의 휴식공간인 남성대 골프장을 폐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비역들과 군원로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그 동안 40여 년간 주둔해 온 군의 역사와 발자취는 물론 예비역들의 휴식공간이 송두리째 사라지게 되는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러한 군의 반발로 사업은 담보상태에 빠지고 무산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주무부처인 건설부와 LH 공사에서는 향군회장이었던 이상훈 회장과 역대 회장들을 통해 군 원로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향군은 대체안으로 예비역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복지타운 건립을 정부에 제안하였고, 이어 국방부는 2010년 8월 부지 1만 평의 확보 가능함을 통보하여 왔으며 2012년

상호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업은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보상차원에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군은 향군 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서 민간단체인 향군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변질 시켜 10여년이 넘도록 착수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군은 본 사업이 지연·지체됨으로써 많은 인적·물적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역대 향군회장들과 이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했던 제가 2017년 8월 11일 향군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사업부지에 향군복지타운을 건립하여 향군 재정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예비역의 복지증진 및 참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복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국토부에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향군은 이 사업을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향군이 부지를 확보한 다음 예비역업무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기반시설 훼손 및 공사소음, 교통문제 등 민원발생이 우려 되고 지가 상승 및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향군이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사업의 적기라고 판단하니 금년 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향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예) 육군대장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향군은 이러한 큰 선물을 만들어 주신 대통령님과 정부의 배려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국방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님과 담당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향군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향군회원 등 예비역의 복지증진과 참전 및 안보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향군은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이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하여 새로운 향군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할 한해도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튼튼한 국방안보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정부의 안보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내외 1,300만 향군가족들의 염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회원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19’ 감염위기 극복 향군이 앞장선다

성금 1억393만원 기탁...대구·경북에 마스크 10만장도 전달

향군은 3월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 써 달라고 성금 1억 393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손무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방문하여 송필호 회장에게 성금을 기탁하고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동참하게 되었다”며 향군회원들의 뜻도 함께 전달했다.

향군은 지난 3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향군 임직원과 전국 향군 조직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추진하였으며 모금 사실을 전달 받은 향군 회원들은 너도 나도 십시일반으로 적극 동참하여 짧은 기간에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향군은 3월6일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마스크 10만장을 대구지방보훈지청을 통해 전

달했다. 대구지방보훈지청은 지역 참전용사, 상이용사,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전달했다.

향군은 지난 2월28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감염추세가 급증함에 따라 대책회의를 갖고 안보차원에서 정부의 확산 방지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대구·경북지역 마스크 전달과 성금 모금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바 있다.



서해수호 영웅 송고한 희생 기려, 안보의식 고취

향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북 만행 규탄



향군은 3월27일 향군본부에서 '제 5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서해수호 호국 영웅들의 송고한 희생을 추모했다.

북한의 도발 사건과 교훈을 되새겨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진호 회장은 북한의 기습 도발에 맞서 해양 수호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참수리 357호 정장故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호국 영웅들,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천안함 46용사와 천안함 구조 중 순직한 해군 UDT소속故 한주호 준위, 같은 해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시 투철한 군인정신을 발현한 故 서정우 하사, 故 문광욱 일병의 송고한 희생에 조의를 표하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방역에 정신이 없는 비상사국에서도 단거리 미사일을 반복 발사한 북한의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향군이 국민들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실체를 올바르게 알리고 국가안보 제1보루인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최상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군상조회 매각에 따른 향군의 입장

향군,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 통해 매각

향군상조컨소시엄, '3년 내 양도금지 위반'...법적 조치

향군은 3월23일 최근 다수의 언론이 '라임운용자산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취재 보도 하면서 향군상조회 매각과정에서의 로비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입장을 밝혔다.

입장에서 향군은 향군상조회 매각배경에 대해 "회원복지와 편의를 위해 10여 년 전 시작했던 상조사업이 업체간 치열한 경쟁과 영업환경 악화로 최근 3년간 적자가 지속되고 330억 원이라는 누적적자가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회원들에게 혜택은 커녕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과정에 대해 향군은 "먼저 지난해 7월 삼일 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 매각에 따른 회원들의 동요 및 대량 이탈로 인한 영업 손실을 우려하여 비공개 매각으로 추진했으며 이때 보고편드 의 2개사가 응찰했으나 나머지 2개사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비공개 매각을 추진, 법무법인 청담을 매각주간사로, 메트로폴리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재무구조가 나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상조회 매각 사실이 공개되고 상조회 노조의 반발로 더 이상 보안유지가 불가능

해짐에 따라 향군은 이사회(2019.12.24.)의결을 거쳐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기로 하였고 주간사를 법무법인 청담으로 선정, 공개 경쟁 매각을 추진하여 최고가 320억을 제시한 향군상조컨소시엄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향군상조컨소시엄이 고용승계, 3년간 상조업 유지 및 주식양수도 금지, 주요자산 매각 금지 등 향군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여 지난 1월 9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금년 1월 20일부터 향군상조컨소시엄 측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

향군은 이번 상조회 매각이 매각 주간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최종 인수업체 선정도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등 매각과정에서 향군을 포함한 어떠한 세력도 중간에서 로비를 하거나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군상조컨소시엄이 3년 내 주식양도 금지조항 외 계약규정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보람상조에 재매각(2020.3.4.)했고 이에 대해 향군은 "계약조건을 위반한 향군상조컨소시엄을 3월17일 '사기행위'로 법적 조치하고 향군상조회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기고

'코로나19' 재난에 더욱 빛나는 재향군인회! "신 안보 위협극복 대열에 동참해 나갈 것"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상이 금방이라도 멈춰버릴 것 같은 위기 속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3월18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성금 1억 393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의 향군회원들이 동참한 것이다. 향군은 '코로나19' 사태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던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향군 임직원과 전국 향군 조직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추진했다.

모금운동이 알려지자 전국의 향군회원들은 빠르게 반응했다. 너도나도 십시일반 동참해 짧은 시간 내에 1억이 넘는 성금이 모인 것이다. 향군은 앞서 지난 6일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 10만장을 대구지방보훈지청을 통해 참전용사, 상이용사, 보훈가족 등 취약계층에 전달한 바 있다.

사실 향군은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로서 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 왔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났을 때 향군회원들은 직접 지진피해지역을 찾아 각지에서 보내 온 구호물품을 분배하고 주민들을 위로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2018년 8월에는 제19호 태풍 '솔릭' 예보가 내려지자 각급 시·도회, 시·군·구회에 구호활동 유형과 임무, 재해 단계별 조치활동 등 피해예방을 위한 준비와 봉사단(청년봉사단, 여성회 봉사단) 운영 지침을 하달해 재해피해 예방과 구호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다세대 주택 600여 가구가 침수되었을 때는 은평구 재향군인회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구호단을 편성해 이재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생수, 간이침대, 식품류 등 총 6500여점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임시대피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구호활동을 펼쳤다.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이 크게 번졌을 때는 즉각 기동대를 출동시켜 산불진화 및 잔불끄기 지원은 물론 김밥봉사로 이재민 저녁식사 제공, 세탁차를 이용한 세탁 지원 등의 이재민 구호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전통적인 안보환경에서 뿐 아니라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감염병, 경제, 테러, 식량, 에너지, 인간, 기후, 사이버테러 등으로 안보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향군도 다양한 신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포괄적 안보활동으로 그 영역을 넓혀 향군의 전국 13개 시·도회와 223개 시·군·구회, 그리고 3,179개 읍·면·동회 조직을 활용해 삶의 터전을 잃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찾아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향군은 지난 해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성금 6억 3천만원을 모금해 전달하기도 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미국의 아들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참전해 목숨 바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송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향군이 나서서 2018년 9월부터 10개월 동안 모금운동을 펼친 것이다.

'추모의 벽' 건립은 미 워싱턴DC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에 둘레 50m, 높이 2.2m 유리벽을 설치해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미군 3만6000명 및 미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한 카투사 8000명의 이름을 새겨 넣는 사업이다. 향군의 모금운동에 공감한 정부에서도 '추모의 벽' 건립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사업추진을 가속화시킨 바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 민간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의 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때문에 콧등이 헐어 일회용 반창고를 붙인 간호장교의 '밴드투혼', 임관식을 마치자마자 대구로 향한 새내기 간호장교들, 마스크 생산 업체에 지원된 장병들, 미안마에서 수술용 가운을 들이온 군 수송기, 방역지원에 나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특수임무대, 혈액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육해공해병대 장병들의 헌혈운동 등 우리 국군의 헌신, 생업을 뒤로 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봉사하는 민간 의료진들, "나는 괜찮아요, 더 급한 당신이 먼저예요"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구한 마스크를 동네 경찰서 지구대 문앞에 놓아두는 시민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사례들은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한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앞으로 향군도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안보활동은 물론 신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대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 힘을 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살피며 하루빨리 어려운 시국을 벗어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어두컴컴한 구름 속에도 한 줄기 빛은 있다(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호국안보곡>

안보단신

북, 美 본토 공격 가능한 ICBM 개발 계속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 영토 뿐만 아니라 역내 주둔 미군,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의 존 힐(Jon Hill) 미사일방어청장은 3월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군사위원회 산하 전략병력소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은 이동식 및 잠수함 발사대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여왔고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들을 다른 나라들에게 이전해 왔다”며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미사일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대니얼 캐블러(Daniel Karbler)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사령관도 북한은 정치·경제적 이득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또 주변국들을 압박하기 위해 단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인 롭 수퍼(Rob Soofer) 미 국방부 핵·미사일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은 미국의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 위협 감소 때까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 해리티지재단은 3월23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특별보고서에서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재래식 군사적 위협이 입증 가능한(demonstrable) 수준으로 감소” 될 때까지, 현재의 2만 8천 500명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전력의 약화로 비칠 수 있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북한이 더 도발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대담성을 갖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생물학전과 유사한 감염병 발생 대비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월23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방문, 코로나 19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과 테러, 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과 국방 차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이번 코로나 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능력을 점검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 차원의 지원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도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전·평시 우리 군의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계획수립과 연구를 조기에 추진하라”고 지시한 뒤 “생물학전과 유사한 감염병 상황 발생에 대비해 특화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고 골든타입 내 초동조치부대를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대의 임무수행태세를 강화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㉞

실질적 혜택 중점, 1천만 회원위해 다양한 복지대책 마련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복지사업의 역사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향군 본회는 1962년 4월 재건총회에서 회원복지를 주요사업 목표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첫 출발이다. 초기에는 회원 구호사업, 취업보도, 권익옹호, 한국군인복지연합봉사회 보조, 상이군경회 보조, 향군 지정병원 이용, 장성회원 건강관리, 생업기금 대부, 향군지정 기술학원 지정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1966년 4월 15일에는 복지사업 전담부서로 개발국(사업국 전신)에 복지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였다. 그 후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복지사업에 많은 발전과 변화가 생긴다. 먼저 본부 기구개편을 통해 복지과를 복지부로 승격시켜 복지과와 직업안정과를 두었다.

1962년 재건총회에서 회원복지 주요사업 선정

업무도 분야별로 분리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내실을 기해 나갔다. 회원 복지증진을 위해 먼저 직업군인 출신들의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국방부와 당시 원호처(지금의 국가보훈처) 등 관계당국에 다양한 정책을 건의 하였다.

그 결과 △전역한 하사관 가운데 본인의 희망에 의해 취업하거나 중고생 자녀 학비면제 중 택일 △ 연금수급자도 의료보험 가입혜택 △ 국립묘지령 개정 20년 이상 근속자 안장 △ 장교출신에 대한 직업보도, △장기 근속자 자녀 학비면제? △ 주택자금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복지사업은 더 한층 강화되었다. 1992년 12월에는 향군회원으로서는 자긍심과 명예선양을 위해 창군 및 6.25참전자,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대한 군 경력인정과 채용 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 장기복무 전역자의 군PX 및 공무원 연금매점 이용, 국립 또는 지방묘지 안장 확장 등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복지국으로 확대 개편 전 회원 공공복지 사업 추진

1995년도에는 조직이 복지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사업도 회원개별 복지사업과 전체회원의 공공복지 사업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의 사업추진 중점은 △새로운 복지정책의 연구발전 △ 공공복지사업의 개발추진 △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활동 등 오늘의 향군 복지사업에 대한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향군은 이러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10억원의 복지기금을 적립하는 한편 생계곤란회원 보조비 지원, 회원자녀 장학금 지급, 법률구조사업, 가맹점 우대사업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내실화 하였으며 20년 이하 중장기 근속회원들의 국립묘지안장을 위해 영천을 비롯하여 최근 과산까지 5개의 국립호국용사묘지(호국원)도 국가보훈처와 함께 추진하였다.

1천여 가맹점 우대사업 전 회원에 혜택 돌아가

그 이후 최근의 복지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을 관리 유지하면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중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가맹점 우대사업이다. 현재 향군과 협약을 맺고 있는 가맹점은 병의원, 음식점, 숙박시설, 교육학원, 웨딩, 장례식장 등 전국적으로 1천 여 개가 넘는다.

특히 금년 1월에 향군모바일 앱 개발과 함께 향군가맹점을 탑재하여 회원들이 손쉽게 원하는 가맹점을 찾아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기대가 크다.

가맹점에 가서 향군회원증을 제시하면 10~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잘만 활용하면 그 혜택이 쏠쏠하다. 향군은 앞으로도 회원 복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홍보실>

군번만 있으면

누구나 향군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모바일 앱 2020년 1월 3일 OPEN!

간편한 정회원가입

향군 가맹점 보기

본부 및 각급회 소식

본부 및 각급회 연락처

◀모바일 바로보기

정회원 자격 : 군번소지자 누구나

-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정회원 특전

- 향군 편의시설 할인혜택 (중앙고속관광, 고성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등)
- 전국 향군 우대가맹점 할인 (10~30%)
- 자녀 장학금/생계보조금 지급
- 국립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자 안내
- 각종 향군행사 초청 및 참가
- 기타혜택 (복지물 등)

평생회비 (단 1회만 납부)

병	부사관·위관	영관
1만원	2만원	5만원

APP 다운로드 방법

Google Play
 App Store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검색
상단에 나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APP을 클릭하여 설치 후 실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 가입문의 : 02)417-5412
 홈페이지 : http://www.korva.or.kr

‘코로나 19’ 방역도 한미동맹, 포괄적 위협 상황 대비

육군 2작사-미19지원사령부, 연합 방역작전

육군2작전사령부(2작전사)와 미19지원사령부(미19지원사)는 3월13일 코로나 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댄다가 해제된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 한미 연합 방역작전을 펼쳤다.

이번 한미 연합 방역작전은 대구에 위치해 미8군의 군수지원 및 한반도 내 전투력 유지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19지원사가 지난 5일 대구·경북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방역작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2작전사에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2작전사 화생방대대 30여 명과 미19지원사 주한물자단 20여 명은 개인별 방호

복과 방역기를 착용한 상태로 한마음아파트 진입로와 주차장 등 주변 곳곳을 방역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힘을 모았다.

이날 한미 연합 방역작전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포괄적 위협 상황에서도 한미 장병들이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자 실질적인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

2작전사와 미19지원사는 추가적인 한미 연합 방역작전의 시행 여부를 차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단신

‘코로나 19’ 극복, 국방신속지원단 운영

국방부는 3월12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긴급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방신속지원단은 이러한 각각의 노력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군 지원 소요를 종합하고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조직이다.

그간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마스크 및 방역복과 같은 의료물자 긴급 수송, 소독, 방역 지원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등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국방신속지원단은 군수관리관을 단장으로, 각 분야별 5개 지원팀(방역, 수송, 물자, 시설, 복지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역별(대구·경북, 서울·경기, 충청 등)로 지역 책임부대를 지정하여 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화살머리고지 발굴유해, 올해 첫 신원확인

지난해 비무장지대(이하 DMZ)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 국군 전사자 4명의 신원이 올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고 정영진 하사(139번째), 고 임병호 일등중사(140번째), 고 서영석 이등중사(141번째), 고 김진구 하사(142번째)이다.

지금까지 6·25전쟁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00년 4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총 142명이며 특히 DMZ내 최초의 유해발굴인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총 7명의 전사자 신원이 확인됐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고인들은 모두 제 2사단 31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상이 진행되었던 기간이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53년 7월 중순경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에서 전사했다. 에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챌린지 REMEMBER 772’ 실시

천안함 재단에서는 올해 천안함 피격사건 10주기를 맞아 국민들과 함께 천안함 피격사건을 기억하고 천안함 46용사를 추모하고자 3월12일부터 26일까지 ‘천안함 챌린지 REMEMBER 772(이하 ‘천안함 챌린지’)’를 실시했다.

‘천안함 챌린지’는 10주기 추모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 개인 SNS등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을 잊지 않고 전사한 46용사를 추모할 수 있도록 천안함 ‘공식’ 추모 배지를 제작했다.

니켈 소재로 제작된 배지의 배경색 블루컬러(파란색)는 평화와 진실, 조화를 상징하는 색이며 바다(해군)를 상징하는 컬러로 바다 느낌을 주기 위해 물결무늬를 넣었다. 가운데 46 숫자 형상은 전사한 동료들을 추모하며 경례하는 해군 장병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표현했다.

천안함 ‘공식’ 추모 배지는 판매를 하지 않으며 천안함 재단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된다.

“어려움 함께 나뉘요”... 육군, 지역경제 회복 발 벗고 나서

육군 각급 부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분담하며 상생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특산물을 단체로 구매하고, 지역 내 외식업체와 연계해 푸드트럭 급식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노력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31사단은 3월6일부터 ‘지역 신선식품 구매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매일 오전 지역 청과매장에서 과일을 일괄 구매하고 오후에 위병소로 배달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졸업식·입학식의 취소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3월4일 ‘희망의 꽃 배달’ 행사를 열었다.

아울러 광주지역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규모 업체에서 농수산물과 음식을 살 수 있는 ‘광주상생카드’ 구매행사를 개최해 80여 명의 장병들이 행사에 참가해 2900만여 원의 카드를 구매했다.

2군단은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을 분담

하고자 3월14일부터 강원도 화천군 재고 농산물 구매에 동참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이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화천군 ‘산천어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행사 중 판매하지 못한 지역농수산물 재고가 상당히 쌓여 지역 농민들의 부담까지 가중됐다. 이에 군단은 지역농산물 군납을 확대, 최근 9600만 원의 농산물을 구매해 각 부대로 보급했다.

11사단은 감자 소비 부진, 가격 하락 등으로 신음하는 강원도 흥천군 감자재배 농가를 위해 ‘감자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수확한 저장감자 3000여 톤을 올해 1월부터 출하하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지역 출하가 제한되고 상관까지 위축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기위해 사단 간부 200여 명은 2월28일부터 3월6일까지 농협중앙회 흥천군지부에서 주최한 ‘감자 팔아주기 운동’에 참여해 감자 275

박스를 구매했다.

8군단은 지난해 5월부터 평일 점심시간 용사들의 외출을 허용해 지역 식당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I♥(Love) 영동 Day’를 운영해왔다. 군단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장병들의 외출이 제한되자 업체를 통해 배달을 요청하거나 간부들이 음식을 직접 받아오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행사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군단은 코로나19로 인해 10여 개 별도시설에 격리된 장병들에게 주 2회 지역외식업체의 음식을 제공하는 ‘군외 급식’도 시행 중이다.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지역 급식업체와 계약해 일일 400여 명에 달하는 사령부와 직할부대 간부들의 점심을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업체는 경제적 도움을 받고, 간부들은 양질의 식사를 누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이천시 인근 배농가에서 배 80상자를 구매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섰다.

해군, 공군, 해병대...혈액 수급난 해소 앞장 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이 헌혈자 감소로 이어지자 해군 각급 부대가 국가적인 혈액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해군3함대는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사랑해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 3월9일과 10일 장병 420여 명이 헌혈 운동에 참여하여 총 16만9120mL의 혈액을 모았다. 이를 동안 광주·전남혈액원의 헌혈버스 6대가 동원됐지만 헌혈을 희망하는 장병이 몰려 12일 추가 헌혈이 이뤄지기도 했다.

해군잠수함사령부(잠수함사)도 12일 부대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쳤다.

부대 장병과 군무원 100여 명은 부대를 찾아온 경남혈액원 헌혈버스 2대에서 헌혈했다.

공군10전투비행단(10전비)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 3월9일부터13일까지 닷새간 계속된 헌혈 운동에서 10전비는 이동형 헌혈 차량 2대를 부대 곳곳에 순회 배치해 장병들이 불편 없이 참여하도록 도왔다. 또 헌혈 차량을 지속적으로 소독하고, 차량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안전한 헌혈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해병대사령부와 예하 부대는 코로나19



로 인한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해 ‘헌혈 릴레이’와 ‘헌혈증 기부’ 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해병대 장병 총 4324명이 헌혈했으며 3월 중 59개 부대가 헌혈 운동에 참가했다. 이와함께 해병대는 장병 헌혈증 기부운동도 펼치고 있다. 올해 336장의 헌혈증을 혈액원에 기부했으며 그동안 모은 2800여 장의 헌혈증도 기증할 예정이다.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법안 통과, 지원 근거 마련

6·25전쟁 70주년... 유엔참전국가 우호증진·참전용사 위훈 및 희생 기려

195만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우와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존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법률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7월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지정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유엔참전용사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 사망 또는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 추진 등이다.

또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등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을 건립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55용사 기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제5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3월27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마당에서 전사자 유가족, 참전 장병과 정부 주요인사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보훈단신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고령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살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3월 1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고령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살피고 보훈요양원 및 보훈병원 등을 방문하여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울(3.11), 충남 천안(3.12), 대구(3.18) 지역을 찾아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보훈재가서비스 재택근무 전환에 따른 어려움 등을 살폈다.

특히 3월12일 천안 지역 방

문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 가구의 소독 및 방역활동에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참여했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령·독거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가정방문 방식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1일 2회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가족의 긴급한 복지지원을 위해 전국 27개 보훈관에서 ‘특별기동지원반’을 운영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

독립유공자 등 57개 합동묘역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유족이 없는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그동안 국가관리가 미흡했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에 준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

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57개 합동묘역이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상시 점검 및 훼손복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상을 높일 전망이다.

또한 국립묘지가 아닌 지역에 안장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묘소가 무연고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상이군인 등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남부지구 1·3·8 경비대 작전지역, 6.25 전투 목록 추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 공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24일 공포됐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고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 검사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후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전역 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보훈 수혜시기를 앞당겼다. 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됨으로써 6·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3·8경비대대 작전지역이 추가됐다.

남부지구 제1·3·8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경찰과 함께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에 함께 편성되어, 1954년 5월26일부터 1955년 3월31일까지 연합으로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됐다.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만 2005년 법률개정으로 6·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로 인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회 탐방 / 경기도 성남시 향군

지자체와 유대 및 상생, 재정자립 위한 출발

축구대회 주최, 정 회원 확보...젊고 강한 조직 육성 6.25 참전국 방문, 참전국에 대한 감사·보은 행사도



경기도 성남시 향군은 최근 '코로나 19'로 고통 받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향군회관 임대료를 20% 삭감했다. 지자체 성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할인운동을 전개했다. '코로나' 정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성남시 향군도 성남시의 호흡을 맞춰 고통 분담에 앞장서고 있다.

지자체와 업무 공유, 유대 쌓아 연 1억1천2백 보조금

우건식 성남시 향군회장은 주중보다 주말이 더 바쁘다. 주말 평균 3, 4회의 지자체 및 보훈안보단체 관련 모임 및 경조사를 찾아다닌다. 우 회장은 회 운영의 기본은 지자체와 유관단체간의 유대와 상생이라며 이것이 곧 회 재정자립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한다.

성남시 향군은 2020년 지자체로부터 1억1천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중 인건비 및 공과금을 포함한 사무실 운영비가 4천2백만원에 달한다. 시군 구 단위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지원이다. 성남시 향군은 이를 지자체와 정책적 업무를 공유하며 유대를 쌓은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자체와 유대를 바탕으로 성남시 향군은 젊은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남시 향군회장기 축구대회를 10년째 개최하고 있다. 향군 청년단 주축으로 매년 지역 축구동우회 8개 팀 가량이 참가하는 대회를 통해 성남시 향군은 회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참가선수들에게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젊은 회원 확보에도 도움을 얻고 있다. 정회원 가입대상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 성남시 향군이 꾸준히 성과를 내는 비결이다. 한편 지난해 10회 대회에서는 8개팀 180여명이 참여해

청년단 및 여성회 봉사활동 회 위상강화의 첨병

이에 더해 청년단은 정기적으로 관내공원 및 유적지 등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주민들과 성남시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회 위상강화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회의 활동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복지시설 배식봉사, 참전단체 지원, 재난재해 봉사, 경로효친사상 선양사업 등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

들로부터 끊임없는 호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을 매년 성남시가 실시하고 있는 '성남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도 응모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획득, 관내 경로당 4곳을 선정해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안보 보훈단체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다. 성남시 향군은 일본의 영토야욕에 맞서 매년 10월 경 독도를 찾아 규탄대회를 겸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탐방을 통해 민족정기와 호국의지를 고양하기도 했다. 또 매년 실시하는 해외탐방행사를 활용하여 6.25 참전국을 방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보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예정됐던 태국방문행사는 '코로나 19'로 연기했다.

모범적인 조직운영 재정위기 각급회에 본보기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모범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 성남시 향군. 탄탄한 회 운영과 재정자립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 이 모두가 하나 되어 이상적인 향군운영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성남시 향군의 모범적인 회 운영은 재정위기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분 분투하는 본부 및 각급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항상 안보를 생각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봉사활동으로 지자체와 상생하며 회 위상을 고양하고 있는 성남시 향군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우건식 회장의 건투를 빈다.



미 동부 향군, 주한미군전우회 행사 참석



미 동부 향군(회장 김인철)이 2월2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한미군전우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김인철 회장은 축하화환을 전달하고 해리스 주한미 대사 등 내빈과 주한미군전우회 관계자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 및 향군의 위상 제고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 향군, 교민대상 안보 간담회



일본 향군(회장 손경익)은 2월27일 김이나 총영사, 김성학 국방부관, 여건이 민단중앙단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과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간 결속을 강화하고 안보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교민대상 안보간담회를 개최했다.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 이용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www.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향우실업, KT와 불용품 매각사업 재 연장 합의...최대 6년

회사존폐 달린 목적사업, 재 연장 당위성 설명...1년간 공들여

향우실업(대표 소병모)이 2월 26일 KT와 불용품 매각사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매년 87억 규모다. 기간만료 후에는 3년간 자동 연장된다.

KT 불용품 사업은 KT가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업 등을 위해 지중에 매설한 통신용케이블이 연한을 지나 교체나 폐기 시

생하는 폐 케이블에서 재판매가 가능한 구리로 추출해내는 폐기물 재활용사업이다.

향우실업은 1984년부터 KT와 불용품 사업을 수행해왔다. 그러던 중 2015년 정부에 의해 재향군인회의 수의계약 권한이 종료되면서 2019년 12월31일까지 마지막 연장 계약이 이뤄졌고 향우실업은 존폐가 걸린 목적사업인 이 사업의 재 연장을 위한 협상을 1

년 가까이 진행해왔다.

향우실업은 2019년 2월부터 상이군경회, 장애인총연맹 등 기존 계약된 호환단체들과 함께 계약 재 연장을 위해 협력을 하는 한편 대한민국의재향군인회의 정부 안보 정책에 대한 기여부분,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위훈선양 등을 기존 계약단체들은 물론 KT를 상대로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계약 재 연장 당위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태국 향군, 99세 영면, 한국전 태국참전용사 조문

영구용 태극기 전달, 명복 빌고 고마움 전해



태국 향군(회장 이형배)은 3월4일 향년 99세로 영면한 한국전 태국참전용사 아란 예비역 육군대령 임관식에 영구용 태극기를 전달했다.

아란 대령은 한국전 태국참전용사 2기 중대장을 지냈으며 고인의 아들 모두 군인 출신으로 큰 아들은 예비역 육군 대장, 둘째 아들은 예비역 해군 중장이다.

큰 손자 역시 현역 육군 소령으로 올해 한국에 연락장교로 파견될 예정이다.

장례식에는 이형배 회장(당시 부회장)을 비롯, 태국전참전협회장 반딧 4성 장군, 주태국 한국 대사관 박광래 무관, 이승선 태국노인회 회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미 남서부 향군, 한국전 참전용사 행사 참석

미 남서부 향군(회장 이승해)은 2월26일 미 제1해병사단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행사에 참석, 한미우호를 증진하고 향군 위상과 명예를 제고시켰다.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국방부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미제1해병사단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장진호전투에서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뿌리가 되는 부대에서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기쁘다”고 밝혔다. 는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태국 향군, 이형배 신임회장 선출



태국 향군은 3월 17일 한국 문화원에서 임직원 및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선총회를 갖고 제4대 이형배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형배 신임회장은 해외Buying Office 대표, 태국 향군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태국 Zaina International Co. 대표로 재직중이다.

향군타워사업본부, 상가 임대료 20% 인하

‘코로나 19’로 인한 임차인과 고통 분담

향군타워사업본부(본부장 장경봉)가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9개 상가에 대한 올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동결하고 3월과 4월 두달치 임대료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향군타워사업본부는 “임차인과 고통을 나누고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코로나 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2회 건물내 방역을 실시하고 매일 공용부분 소독을 진행해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향군, 서울 성북구 향군, 경기도 성남시 향군, 충북 제천시 향군 등 전국 각급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회관 내 입주한 사업장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있다.

합리적인 소비로 지역경제 살려야

원주시 향군,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



강원도 원주시 향군(회장 원유희) 여성회와 임직원, 회원 등은 3월20일 단계동 단계사거리 인근에서 강원일보 영서총지사와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권장하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개선에 힘을 보탰다.

원주시 향군 박숙자 여성회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로 풀뿌리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자”며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으며 자영업자에게 응원의 기운을 불어넣기도 했다.

이날 원주시 향군회원들은 캠페인과 함께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안내하며 바이러스 감염 예방 활동도 진행했다.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2월21일 ~ 3월20일)

서울시 향군



성북구회 : 3월20일 '코로나19' 극복 성금 200만원을 마련 성북구에 구호물품 지원. 매주 화요일 동별로 주민 다중 이용시설 방역활동 실시.

대구시 향군



동구회 : 여성회는 3월9일 제일기독교합사회복지관 신세계이마트 장난감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실시.

달서구회 : 여성회는 3월6일 신당동 노인복지회관에서 반찬봉사 및 '코로나19' 관련 방역 봉사활동 실시.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3월10일 향군회관에서 군·구 회장 긴급 간담회를 실시하고 향군회무 활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자원마련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운영 강조.



동구회 : 3월13일 '코로나19' 특별성금 100만원을 동구청을 방문, 허인환 구청장에게 전달.

중구회 : 3월9일 내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신포시장에서 코로나19 예방 방역작업 실시.

경기도 향군



수원시회 : 2월26일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무료급식소·지역방범 초소 등에 방역 봉사활동 실시.

시흥시회 : 청년단은 3월7일 자율 방역단을 결성하여 '코로나19' 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상가 방역 활동 실시. 청년단은 3월13일 센트럴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한 간식거리 지원.

양주시회 : 3월9일 기동 방역단을 편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 공원 등 지역 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 시설 방역활동 전개.



이천시회 : 3월 중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을회관, 외국인노동자쉼터, 보건회관 등에 대한 방역활동과 청소년가정에 대한 도시락 배달 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강원도 향군



동해시회 : 북삼동회는 2월24일 전천강 일원에서 쌍용양회 동해공장 직원들과 환경정화 활동 실시.

충청북도 향군

청주시회 : 청년단은 3월12일 오창읍 상평리 일원 참전유공자, 독거노인 가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 전개.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서구 : 여성회는 3월16일 탄방동 공방에서 면마스크를 제작,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관에 무료 보급.



대전 유성구회 : 2월21일 합동안장식에서 차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한 공로로 대전현충원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태안군회 : 3월17일 태안군청을 찾아 '코로나19' 감염예방과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원 전달.

보령시회 : 3월11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급감하여 어려움에 처해

회원의 목소리

서해수호의 날 제5주년을 맞아

호국영웅 희생 기리고 국가안보 소중함 되새겨야...

따뜻한 날씨, 부드러운 바닷바람과 돌아오는 새싹은 지금 계절이 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3월은 3·1절 101주년 기념일과 3·8민주의거 및 3·15민주의거 60주년 기념일 등 다양한 보훈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3월 넷째 금요일은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호국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해야 할 날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 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서해수호의 날을 3월 넷째 금요일로 법

정기념일을 제정한 이유는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6명 전사),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46명 전사),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23일, 2명 전사) 등 북한의 서해 도발 중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정부기념식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를 비롯한 국가수호 희생자 유가족, 국군장병, 일반시민·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향군인회와 호국

보훈안보단체 연합회가 주관해 도민, 학생, 장병 등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3월 27일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됐지만 도민과 회원은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마음으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향군회원 여러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고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최근까지 300여 회의 대남 침투와 도발, 여섯 차례의 핵 실험, 150여 회의 미사일 실험과 발사 등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할 사항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 지난 2일과 9일 동해상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최근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5회 서해수호의 날에 즈음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장병들과 그 숭고한 희생을 함께 추모하고 우리의 안보 의식을 결집해야 할 시기입니다.

6·25전쟁 발발 70주년, 천안함 피습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주도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믿음직한 울타리가 되는 제2안보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김달수
제주도 재향군인회 회장



있는 전통시장 및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봉사활동 실시.

전라북도 향군

김제시회 : 2월27일 3.1절을 앞두고 태극기 달기 운동 및 태극기 무료 보급 운동 전개. 2월28일 호국 현충시설인 고 안 영권 하사 전공 기념비 환경 정화 활동 실시. 3월4일 향군회관 외부 환경정화 활동 및 주변 대청소 실시.

순창군회 : 3월3일 향군회관 주변 봄맞이 대 청소 실시, 쾌적한 환경 조성. 3월17일 순창군청 앞 광장에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 참여.

익산시회 : 2월21일 향군회관에서 “위기 상황서 더 빛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진안군회 : 3월10일 자매결연 지역인 경북 청도군 향군에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도군민에게전해 달라며 진안 특산물 홍삼엑기스 20박스 전달.

남원시회 : 여성회는 3월17일 지적장애인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제작 봉사활동 실시.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2월27일, 3월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회에 마스크 전달. 여성회는 3월5일 지난해 수익사업 판매실적 1위 포상금 일백만원으로 간절기용 아동용 실내복을 구입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전달.

여수시회 : 면 마스크 제작업체에 재료비

2백만원을 기탁, 도서지역주민들을 위해 3월6일부터 10일까지 여성회관에서 마스크를 제작, 전달.

나주시회 : 3월5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구시 달성군회에 손 소독제 7박스(560개, 140만원상당)를 전달.

해남군회 : 여성회는 3월11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남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소독 봉사활동 실시.



무안군회 : 여성회는 3월18일 무안군청 여성교육장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희망마스크 만들기 봉사 실시.

경상북도 향군

경북도회 : 2월21일 흥순임 여성회장이 경북여성단체협의회 21대 회장으로 취임.

영주시회 : 여성회는 3월9일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힘써 달라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 100만원을 영주시에 기탁.



포항시회 : 청년단은 3월13일 포항시청을 방문, 단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 410만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 달라고 이강덕 시장에게 전달.

문경시회 : 3월13일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는 문경보건소 방역 상황근무자들에게 도시락 전달.

경산시회 : 3월18일 자매결연 맺은 고창군회에서 지원한 성금 150만원으로 부족한 의료품을 구매하여 경산시 의료기관에 지원.

성주군회 : 3월2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성주군에 전달.



영천시회 : 여성회는 3월9일부터 13일까지 영천시 교육 문화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 마스크 만들기 봉사활동.

경남 울산 향군

거제시회 : 3월4일 ‘해뜨는 오리’에서 변광용 거제시장 및 시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회관 노후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안업무 건의. 여성회는 3월20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 10곳에 손소독제, 비누 등 위생용품 전달.

거창군회 : 3월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거창군에 성금 100만원 기탁.



창녕군회 : 3월16일 창녕군을 방문, 한정우 군수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군민을 위해 써 달라고 성금 200만원을 기탁. 여성회는 3월13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마스크 제작 봉사활동 참여.



의령군회 : 여성회는 3월17일부터 20일까지 군민회관에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 만들기 봉사활동 참여.

창원 진해구회 : 여성회는 3월6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도넛 세트 기부.

하동군회 : 여성회는 3월12일부터 20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제작,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보급.

진주시회 : 여성회는 3월20일 진주IC, 고속버스터미널, 진주역 등 다중이용시설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 격려.



울산 중구회 : 3월6일 중구청을 방문, ‘코로나19’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원 전달. 3월12일 중구 선별진료소에 100만원 상당의 도시락 전달.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2월24일 향군회관에서 회장단 및 직능대표 간담회를 갖고 회 활동상황 보고 및 현안 논의.



서귀포시회 : 동흥동회는 3월8일 동흥동지역 버스 승차대 32개소,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 22개소에 대한 방역활동.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184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등 이용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 (<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 / 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오산한국병원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 031-379-8676 : 10%

기타

· 남대문비전안경원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02-771-1199 : 30~50%
· 코바플라워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48-1) 02-3679-7070 : 근조 3단 화환 78,000원, 축하 3단 화환 59,000원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 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사로65번길 17) 032-543-3471 : 20~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 ####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

- 길 32-3) 054-504-7077 : 특별할인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죽교동 440-4) 061-243-3399 : 30%
- #### 기타
- 그린리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동 1085) 042-488-0424 : 10%
 -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코로나 19'와 맞서 감염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는 후배 지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 성금 1억여 원 모아 전달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회장 우승란)가 '코로나 19' 확산에 맞서 최일선에서 감염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는 후배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2월29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는 대구 동산병원, 국군수도병원, 대전병원과 곧 지정병원의 역할을 하게 될 국군 대구병원에서 '코로나 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후배 간호장교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펼쳤다.

2월29일부터 3월19일까지 1억139만여 원을 모금한 국군 간호사관 총동문회는 과견된 후배장교들을 위해 3월4일 대구동산병원을 시작으로 국군대전병원과 수도병원에 각 500만원, 국군대구병원에 1,000만원, 의무사령부 및 예하 병원과 육군 의무실, 해군 포항병원과 해양의료원, 공군

11, 17전투비행단 등에 총 5,800여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김선희 대구경북지회장과 지역 동문들은 대구동산병원에 과견된 후배장교들을 위해 급히 물품 및 음식을 구매하여 병원을 찾아 위문했다. 또 국군대구병원에 마스크 1,000장을 지원하기로 지정 기탁서를 제출, 병원협회를 통한 마스크 구매 시 구매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승란 회장과 총동창회 임원들은 의무사령부 및 수도병원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고 의무사령부 방역대책본부를 방문, 통제처장역할을 수행하는 이순영 대령을 격려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는 후원금을 수령한 각 병원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오고 있으며 동문들도 후원과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우여! 어디에 ...

- 기원종씨가 1974년 6월17일 입대해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강원도 양구 보병 제2사단 32연대 1대대 4중대 1소대에서 함께했던 전우 안오근, 이형기, 신철웅씨를 찾습니다. (기원종 : 010-3614-7977)
- 황승호씨가 육군 제7289부대 333관측대 3포대에서 같이 근무하다 1983년 9월 전역한 동기 이우암씨를 찾습니다. (황승호 010-6899-2089)
- 박상욱씨가 경기도 금촌 9사단 28연대 수색중대 창설멤버 전우들을 찾습니다. (박상욱 010-2573-6390)
- 이재경씨가 26사단 121기보대대 군 생활시절 부모님처럼 돌봐주셨던 통신 부소대장 최성환 상사를 찾습니다. (이재경 010-8000-8285)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낸 숨은 영웅들을 국가가 호명(呼名)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무공훈장을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56,000여 명의 영웅과 유가족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습니다.

기간 : 2019. 7. 24.~2022. 12. 31.

국민 참여 방법

- ▶ 군번을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조사단으로 전화하세요.(1661-7625)
- ▶ 군번을 모르시면 먼저 가까운 행정 복지 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병적을 확인하고 군번을 확인해 주세요.
- ※ 우리 동네 숨은 영웅 찾기에 적극 참여하세요.


무공 수훈자 혜택 : 영예 수당 지급, 보훈 병원 진료, 국립묘지 안장 등

상담 문의 :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042-550-7382, 7399)





호국 영웅과 그 가족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대한민국육군
Republic of Korea Army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해병대전우회: 4월4일 덕산스포텔에서 운영위원회. 4월18일 덕산스포텔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포병전우회: 4월7일 전우회 회의실에서 임원회의. 4월9일 서울식물원에서 자연보호활동.
- ▲광복군동지회: 4월14일 현충원 임정요인 묘역에서 지정전 장군 63주기 추모제.
-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월18일 4.19민주묘지 유영봉안소에서 4.19혁명 희생영령 추모제.
- ▲감중장교전우회: 4월20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상임운영위원회.
- ▲재향여군연합회: 4월22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 ▲상이군경회: 4월23일 중앙보훈회관에서 정기총회.
- ▲정보동우회: 4월29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6·25전쟁 전승기념관을 찾아

‘절체절명’ 낙동강 방어선 지킨 왜관지구 전훈 기려

왜관지구 전적 기념관, 연 20만 관람객 찾는 호국의 교육장

왜관지구 전적 기념관은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으며 6·25 전쟁 중 왜관 지구 전투를 기념하기 위하여 1978년 7월 1일에 준공했다. 2001년 6월25일에 6.25 참전용사 충혼비를 세우고 2001년 12월1일에 교육관을 준공했다. 그 후 2003년 11월30일에 무공수훈자 전공비, 2004년 6월30일에는 월남 참전 용사 유공비를 세웠다.

462㎡ 규모의 기념관 1동은 야외 전시를 포함하여 야포 등 총 123종에 241점의 6·25 전쟁 때 사용된 무기류들이 전시되어 있다. 교육관은 크기가 142㎡로 200명을 수용하여 전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야외에는 높이 3.8m 전적비 1기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외 6.25 참전용사 충혼비에는 1,447명의 참전 용사가 명각되어 있다. 무공수훈자 전공비와 월남참전용사 유공비에는 각각 77명과 319명을 명각하여 기념하고 있다. 야외 전시 장비는 O-1G(SHOOTING STAR), 나 이키유도탄(NIKE MISSILE), M125장갑차 CARRIER, 76.2mm 곡사포 HOWITZER, 76.2mm 직사포 GUN, 40mm 대공포 ANTICRAFT GUN 등이 전시 되어있고 그 밖에 자유 수호 용사상, 자유 수호 여인상이 있다.

칠곡군은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결정적인 전투였던 다부동·왜관 전적 기념관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여 전후 세대에 대한 전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년 20여 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온다.



※ 왜관지구전투

1950년 8월1일 미군의 워커 중장은 ‘워커라인’이라는 낙동강 방어선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8월3일 왜관 전 주민의 소개령이 내려고 낙동강 방어선의 교량들은 적 도하 방지를 위해 8월 4일 새벽까지 모두 폭파 되었는데 이때 왜관 인도교도 폭파되었다.

8월16일 인민군 4만 여명이 집결해 대규모 도하작전을 벌이자 워커 중장은 일본에 있는 맥아더 원수에게 용단 폭격을 급히 요청하게 된다. 이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 출발한 B29 비행기 98대가 왜관 서북방 67km²에 26분 동안 960톤이나 되는 폭탄을 투하했다. 이 폭격으로 인민군 4만 명 중 3만여

명이 죽었다고 하니 1초에 20명, 1분에 1,15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용단폭격으로 산과 들은 벌집 썩어놓은 것처럼 되어버렸고 특히 인민군 제 2군단의 병참 보급기지이자 제3사단 사령부가 있었던 약목역(약목면 북성리)근처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어 버렸다.

당시 인민군 야포의 사정거리는 20km, 반면 왜관에서 대구까지는 25km가 넘었다. 왜관을 빼앗길 경우 이곳에서 10km 후방인 도덕산까지 인민군이 장악해 대구는 인민군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며 부산까지 밀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엔군이 필사적으로 왜관 일대의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려 한 이유였다.

향군장학기금

※ 기간 : '20년 2월 22일~'20년 3월 25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경기도 부천시재향군인회 심곡동회 회장 조상익 3(19)

▶ 정기기부

• 前 홍보실장 이정호 1(266)
• 권율부대 강모아 1(56)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향군장학재단 홈페이지 제작 운영

향군장학재단이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방문하려면 ‘향군장학재단’ 또는 ‘kvasf.or.kr’을 입력하면 된다. 홈페이지에는 재단에 대한 소개와 장학업무, 기부관련 내용과 사업결산서 등이 탑재되어 있다.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향군인신문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

노령층에 취약한 피부질환 ‘건선’, 가족력 살펴봐야

건선은 경계가 분명한 은백색의 인설로 덮여 있는 홍반성 피부 병변이 특징으로 주로 팔꿈치, 무릎, 엉덩이, 두피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발생하며 악화화 호전이 경우에 따라 반복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건선은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비전염성 만성 피부질환으로 아직까지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통상 우리 몸의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피부의 각질형성세포는 일정한 주기로 분열하고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일생을 마친 세포는 비듬과 같은 피부 껍질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러한 피부각질형성세포 증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T세포이다. T면역 세포가 활성화 되면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함께 분비 및 활성화 되면서 피부 각질형성 세포를 자극하는데, 피부 각질형성세포가 빠르게 증식함으로써 비듬과 같은 비정상적인 각질이 겹겹이 쌓여 건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건선 환자 10명 중 4명은 건선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족 중 건선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기에 건선을 예방,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단 및 치료방법

건선은 환자의 병력과 피부 증상을 통해 피부과 전문의이면 일단 건선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지루피부염, 유건선, 모공홍색잔비늘증, 장미색 잔비늘증, 편평태선 등의 건선과 유사 계열 질환뿐만 아니라 약진, 건선모양 매독 발진, Reiter 증후군, 균상 식육종, 만성단순태선, 진균질환 등의 피부질환이 건선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와 같은 질환들과 감별을 위해 피부조직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건선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대표적인 만성 피부 질환으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건선 질환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거나, 병원 진료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많은 환자들이 전문적 치료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보완대체의학

을 사용하거나 자가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요법, 보완대체의학 등은 아직까지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므로 자의적 판단으로 건선 치료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건선 질환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병원 방문을 통해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건선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약을 바르는 국소치료법, 광을 쬐이는 광치료법, 약을 먹는 전신치료법,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생물학제제 치료법 등이 대표적이다.

예방법

▶피부 자극이나 손상을 피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피부자극이나 피부 손상은 건선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선 환자는 이러한 피부손상을 피하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다. 건선의 피부는 정상적인 피부의 수분과 지방질

이 잘 공급되지 않아 쉽게 건조해지며, 수분이 정상인보다 빠르게 소실되므로 피부 건조를 막는 것이 건선을 치료함과 동시에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정서적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해야 한다. 건선 환자들은 일상 생활 속 스트레스 외에 건선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선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육체적인 과로도 피하고 휴식이 필요하다.

▶환절기 및 겨울철 피부에 주의해야 한다. 건선 환자의 피부는 계절 변화에 따른 피부 기능 조절 능력이 정상인의 피부보다 크게 떨어져 대기 습도가 떨어지는 겨울에는 건선이 악화되기 쉬우므로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술, 담배를 피한다. 흡연자는 건선 발병 위험이 높고 금주를 할 경우 건선의 경과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루에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선이 악화될 위험이 2배 이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보정세보고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정책 변화 전망

김정은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미국을 향한 공세적인 정치·외교·군사적 대응조치를 천명했다. 특히 김정은은 미국의 행동에 따라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명해왔기 때문에 금년 신년사에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김정은의 신년사는 제5차 전원회의 결정서로 같음됐고, 새로운 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금까지도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한 공식화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연말 중국에서 발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이 연초에 연일 강조했던 정면돌파전의 관철이 주춤한 상태다. 코로나19 대비 국가비상방역체계 선언으로 북한의 대외정책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새로운 길' 추진이 코로나19라는 변수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창궐로 중대 상황을 맞이하게 된 북한의 대남·대외정책의 변화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가 북한 대외 정책에 주는 영향 요인

북한은 중국 우한지역에서의 코로나19 발생 확인 이후 한 번도 공식적으로 북한 내에 이 바이러스가 보고되었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러나 1월~2월 사이 북한 매체는 유난히 방역체계를 강조하였고, 1월 30일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출입국 단절조치를 취하였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활발한 국경무역을 벌여온 북한의 환경 상 만약 북한 내에 코로나19가 전파되었다면 그 시점은 한국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다. 만일 북한이 코로나19의 영향권에 들었을 경우, 그 파급영향은 낙후된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미칠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제재 내구력의 약화 혹은 경제제재 효과의 증폭이다. 북한이 지속되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기 싸움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첫째, 북한 내부의 결속, 둘째, 긴축재정의 운영, 셋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우회적 지원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북한 내부에 심리적 불안감과 정권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계획에 없던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관리비용 역시 제재 하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못지않게 중대한 타격이 중·러로부터의 우회적 지원 차단이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강화된 제재를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의 하나는 민생경제의 타격이었다. 코로나19는 북한에게는 경제제재 내구력의 약화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미래 지원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부담으로도 작용한다.

코로나19 이전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은 2019년 12월말의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그 동안에 전개된 미·북 협상에 대한 실망감을 피력하는 동시에 "공세적인 정치외교 및 군사적 대응조치"를 천명하였다. 전원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은 [전원회의 결정서] 형식으로 2020년 김정은 신년사를 대체하여 북한매체에 발표되었다. 다양한 내용들이 결정서에 담겨 있지만,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조건을 변경한 타협안은 없으며, 미국이 낡은 각본을 바꾸어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북한은 이후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자신들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은 스톡홀름에서 제시된 이상의 조건들을 북한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스톡홀름에서의 제시안이 자신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선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대미 정책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당장은 타협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대북제재의 부담성을 국제사회에 강조하였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과시하는 선전전을 펼치는 한편, 미국이 지난해 13회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해 준 것을 이용해 단거리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켜 한국 및 주변국에 대한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달성하는 무력시위를 계속했다. 특히, 한·미 연합 연습/훈련을 전후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함으로써 이의 부담성을 국제적으로 강조했다. 다만, 미국의 즉각 반응이 예상되는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자제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북한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 11월 미 대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의 관심유도형 도발을 이어간다는 의도였다. 특히 금년 미대통령 선거과정 중 트럼프대통령이 공지에 물

북한의 정책변화 기대보다 우리가 주도적 입장 가져야

리거나,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의 윤곽이 뚜렷해질 때 다시 대미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대중·러 정책

대북제재가 11월까지 계속된다는 전제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유지시키며, 특히, 북한은 미국과 경쟁중인 중국을 이용하여 대북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다. 러시아와도 일정수준의 외교·경제적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대남 정책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북간의 쟁점으로 한정하여 추진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는 교류·협력에 국한하는 등의 도적인 남한 무시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한국을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국제여론 조성의 전위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지속했으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의지를 역이용하여, 대북정책 성과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도록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남북 경제협력 역시 한국의 참여를 북한이 보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대북지원의 경우에도 북한이 이를 먼저 요청하기보다는 한국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코로나19 변수의 발생은 기존의 대남/대외정책 방향에도 수정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환경을 촉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대미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에 비해 타협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이것이 굴욕적인 양보로 해석될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설혹 북한 내에 방역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

〈표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북한의 대남/대외 노선 수정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비고
대미 정책	·미 입장 변화 촉구 ·새로운 길 암시 ·연합연습/훈련 전후 무력시위 ·상황고려 ICBM 발사실험재개	·미국과 타협 가능성 ·인도적 문제 강조로 제재 완화 요구 ·제한된 실제 능력 시위 등 도발 ·발사 자제 하 유지 하되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암시성 정책 추진	·기존정책 보다 구체적인 명분을 고려하여 정책 추진 예상
대중·러 정책	·협력관계 확대 ·우회적 지원 확대 추진 ·국경 무역 확대	·수사적 협력 강조 ·우회적 지원 불가 인식 하 정책 추진 ·국경 무역 일시적 중지(코로나 간 한정)	·양국의 실질적 경제 참여가 미지수이고 지원 여부 미지수에 따른 변화 불가피
대남 정책	·선제 대화 배제 ·남한의 선제적 자발적 지원 전제 수용 ·무시 위주 전략	·우회적 대화 추진 ·남한의 지원 희망 ·민족 공조 강조 하 전 수준 협의 추진	·대남 주도권 유지 하 한국의 지원 유도

더라도 이것이 제재효과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인도적 문제"로 포장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노선수정을 위해서도 기존에 자신들이 공언했던 새로운 길과 '새로운 전략무기'라는 말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고지도자가 빈말을 했다는 인식을 받게 되고, 과거로의 회귀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에는 분명한 부담이 따른다. 이 대안으로 북한이 고려하게 된 것이 ICBM/IRBM과 같은 조치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위협능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을 것이다.

타이밍 역시 변경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당초 의도했던 무력시위의 시기는 3월 초·중순의 한·미 연합 연습/훈련 전후였을 것이다. 규모도 초대형방사포 수준을 넘어선 중거리 미사일까지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그런데, 3월의 연합훈련이 대북 유화책의 차원이 아닌,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유예되었다. 스스로가 짠 시간예정표가 어그러짐으로써 새로운 타이밍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당장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힘들더라도 결속을 지속 과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포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중국에 대해 주변국 중 가장 선제적으로 철도·항공 운송을 중단한 조치 역시 원만하게 납득시켜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기존에 무시 위주 정책에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믿고 있던 자원의 유입통로가 막힌 이상 그를 대체할 지원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이 북한의 기존 대남노선을 변화시킬 정도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 최선의 구도는 한국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북 지원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마침, 2020년 초반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재차 밝힌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북한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북한이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 수정에 대한 분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 대외정책의 수정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첫째, 최근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3중고(경제, 경제, 전염병)를 겪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뜰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북한의 의료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자체 능력을 초과하는 방역문제 등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방역문제는 범세계적 문제이기도 하나 북한의 자체 해결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고려할 때 UN기구나 우리(남한)와 중국 등의 지원은 필수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견제함을 과시하기 위해 미국이 용인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은 물론 담화, 친서 등을 통해 고도의 심리전을 실시하고 있는 등 그들의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완전한 비핵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측은 한·미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길'과 '충격적 실제 행동', '새로운 전략무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난해와 금년 진행된 지속적 미사일 도발은 우리에게 확실한 위협이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강경대응을 피하면서도 김정은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대내외 과시하면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넷째, 북한은 기존 노선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고 이제 공은 한·미에 넘어갔음을 주장하면서도 타협의 여지를 남긴 것은 차후 국제 정세를 보아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핵·미사일 문제는 미·북의 문제로 철저히 분리, 우리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김정은 친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지를 남기고 있다.

평가 및 우리의 대응 평가

코로나19에 의한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를 평가해 보자면 첫째, 북한의 코로나19관련 노선변화 예측은 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전술상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의 대외/대남정책 역시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부분적인 노선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 미북 대화의 가능성 여지는 남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남 및 대외 도발 수위와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말과 금년 초로 예상했던 새로운 무기, 즉 ICBM, SLBM등의 도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셋째, 북한의 의료수준과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대통령이 3.1절 행사에서 제안한 남북 보건 의료분야 협의는 가능성이 있는 대북지원 사업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선과정과 결과에 따라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은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인 버티기, 기싸움의 기본 노선은 변경하지 않고 운용상의 전술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대응

첫째, 이 같은 북한의 대외 전술적인 변화에 대비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에 계속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할시 갈수록 위협수위가 높아지고 횡수가 증가하여 결국 북한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에 덧붙여 북한 코로나19 변수를 활용할 정부의 대북·대외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이며, 셋째, 북한에 제안한 보건/의료 협력관련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국민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의 대선을 고려한 유연한 대북·대미정책의 추진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기회와 도전은 확연히 바뀌게 된다. 북한의 대외정책 노선조정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참고자료】

북한 대남/대외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아산정책연구원, 2019. 3. 11

※ 본 안보정세 분석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